

10월 넷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10월 넷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10월 넷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으로 은혜롭고 감동적인 예배를 준비하세요. 가을의 깊어가는 정취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기도문들을 소개합니다. 각각의 기도문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이 시기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릴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감사의 10월 넷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1 - 추수감사절을 앞둔 마음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심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105:1)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드립니다. 지나온 열 달의 시간 동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시며 인도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시며, 일터에서의 안전을 보장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다가올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과 입는 옷, 거할 곳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베푸심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하시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앞으로 다가올 11월과 12월의 시간들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웃에게 사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개의 10월 넷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2 - 돌이킴의 은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9)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음에 감사드리며, 동시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순간들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때로는 말과 행동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했으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와 말씀 읽기를 소홀히 했고,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품었던 최악된 모습들을 주님께 아뢰며 용서를 구합니다. 가정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할 때 이기적인 마음을 앞세웠고,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보다 편의를 추구했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화합보다는 분열을 조장하는 말과 행동을 했던 것들을 깊이 뉘우칠 뿐입니다. 이 모든 죄악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앞으로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의 10월 넷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3 - 공동체를 위한 기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20)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거룩한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양들을 돌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지혜와 건강,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매주 준비하시는 설교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삶의 변화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목양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와 각 기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화롭게 운영되게 하소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장년들과 어르신들께서는 신앙의 성숙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전히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베풀어주소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가게 하시고, 사회 곳곳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가정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과 이해가 넘치게 하시고, 부부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10월 넷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4 - 새로운 한 주를 위한 기도

“여호와와 함께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민수기 6:24-25)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예배를 마치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하시며 인도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다가올 일주일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소서. 가족들과의 시간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과는 협력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맺게 하소서.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만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각자가 맡은 일터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소서. 학생들에게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직장인들에게는 맡은 업무를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정직한 경영으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업이 되게 하시고, 은퇴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여생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건강과 보람을 허락하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시험들과 어려움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소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겨도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다음 주일에도 건강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한 주간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소망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유의 10월 넷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5 -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한 기도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5)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몸의 아픔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시는 분들, 그리고 삶의 무거운 짐으로 지쳐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신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합니다. 의료진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약물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최선의 결과가 있게 하소서. 무엇보다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울과 불안으로 마음이 어두워진 분들에게 평안을 주소서.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마음을 짓누를 때 주님의 사랑이 그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소서. 외로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힌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계신 가정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실직과 사업의 어려움, 생활고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돕고 격려하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아픔을 당한 이웃들의 짐을 함께 지고, 서로의 기도 제목이 되어주며,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고통을 지셨음을 믿으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